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는 성경공부 교재

창세기 영맥풀이

창세기를 읽으면 천국이 보인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설계도를 보는 것이다. 그 설계도는 천국 그대로를 반영한 것이다."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A dramatic seascape with a rainbow and a lighthouse. The sky is dark and stormy, with rain falling diagonally across the frame. A bright rainbow arches from the horizon towards the top right. In the foreground, the dark, choppy surface of the ocean is visible. On the right side, a portion of a dark, cylindrical lighthouse structure is seen. A bright lightning bolt is visible on the left side of the horizon.

목차

CONTENTS



서 론	창세기 개요 _ 4
제 1 장	천지 창조와 근원 _ 25
제 2 장	아담의 원죄와 구속의 서곡 _ 41
제 3 장	죄의 확산과 거룩의 삶 _ 54
제 4 장	홍수 심판과 새시대 언약 _ 66
제 5 장	바벨탑 사건: 인간의 교만 _ 78
제 6 장	아브라함의 소명 _ 87
제 7 장	언약의 확립과 시련 _ 95
제 8 장	아브라함의 믿음 훈련 _ 111
제 9 장	이삭과 야곱의 계승 _ 119
제 10 장	야곱의 방랑과 이름 개명 _ 127
제 11 장	요셉의 고난과 구속 섭리 _ 140
제 12 장	족장 시대의 종결 _ 150



서론

/

창세기

개요

서론 창세기 개요

도입내용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시작이며, 세상과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복잡한 신학 이론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셨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 제목 및 저자와 기록 배경

가. 제목과 책의 시작

(1) 히브리 제목 '태초에' <베레쉬트>의 의미와 하나님의 영원성

a. 시간의 기원과 하나님의 영원성

- 창세기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태초에' <베

레쉬트>입니다.

- 이 단어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 비로소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라는 신학적 사실을 선포합니다.
-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시작인 '처음' <레쉬트>을 만드셨으나, 그분 자신은 시간 밖에 계신 영원하고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시 90:2).

[시 90:2]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b. 하나님의 자기 존재에 대한 선포

- <베레쉬트>의 시작은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선포입니다.
- 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는 이름이 가진 속성과 일치하며,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근원이심을 확증합니다.

(2)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역사 경영

a.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권

- 창세기의 이 선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시간과 역사 전체를 관통하여 작용함을 의미합니다.
-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일방적인 의지 안에서 시작하셨고, 그 목적을 따라 완성하실 것입니다.

b. 창조주와 통치자의 신앙 고백

- 따라서 창세기는 단순한 기원론을 넘어, 창조주가 곧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의 근본이 됩니다.
- 이 주권은 인간의 죄악이나 역경 속에서도 결코 훼손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나. 기록 목적과 이스라엘의 정체성

(1) 기록 배경과 광야 세대의 영적 필요

a. 광야 세대의 영적 빈곤

- 이 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이끌어낸 후 기록했습니다.
- 400년 동안 애굽의 다신교적 환경과 노예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뿌리를 잃고 영적인 빈곤에 처해 있었습니다.

b. 정체성 혼란 해소

- 그들은 광야에서 고난과 시험을 겪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 창세기는 이러한 영적인 공허를 채우기 위해 기록된 근본적인 역사 교육서였습니다.

(2)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성과 언약 확립

a.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성 교육

-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모든 우상(애굽의 신들)과 달리, 그들의 뿌리와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분만이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전능한 주이심을 가르쳤습니다.

b. 언약 '언약 <베리트>'의 신실성

-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베리트>'가 400년의 침묵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 있고 유효함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법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3)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 기초와 소망

a.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단순히 유랑민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확고한 역사적, 영적 정체성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b. 미래 구속에 대한 소망

- 그들의 소망은 애굽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미래의 구속에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2. 핵심 주제와 구원의 시작

가. 핵심 주제: 언약과 배신의 반복

(1)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과 인간의 죄와 실패

a. 행위 언약의 파괴

-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언약)과 인간의 반복적인 죄와 실패 사이의 끝없는 영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 첫째, 행위 언약(에덴에서 순종을 요구)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선악과)으로 파괴되었습니다.

b. 인간의 전적 죄악 증명

- 이 실패는 인간의 영적 오만에서 비롯된 전적인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

려는 근원적인 교만이 인류 역사의 시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 죄의 반복과 비극적인 확대

a. 죄악의 가속화

- 인간의 죄는 아담의 범죄(원죄)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가인(살인과 시기), 홍수 이전 세대(폭력과 성적 타락), 바벨탑 건축자들(조직적 반역)을 통해 급속도로 확대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b. 조직적인 악으로의 귀결

- 이는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타락의 궤적은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조직적인 악으로 귀결됨을 증명합니다.

(3) 심판과 은혜의 구속사적 순환

a. 공의와 새로운 기회

- 하나님은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심판과 새로운 기회(은혜)를 항상 짝지어 주십니다.
- 심판(홍수, 언어 혼잡)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징계인 동시에, 새로운 창조를 위한 평화 작업이었습니다.

b. 유일한 해결책

- 이 심판과 은혜의 반복되는 순환은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증명합니다.

나. 구속사의 청사진: 원복음과 언약의 확장

(1) 구원 계획의 씨앗: 원복음의 영원한 법령

a. 인류 최초의 구원 계시

-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구속사)의 씨앗을 심고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이 계획은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순간, 뱀에게 선포된 원복음(창 3:15)에서 시작됩니다.

b. 메시아 오심의 근본 예언

- 이 원복음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인류 최초의 구원 계시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적 법령입니다.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의 타락 직후 하나님께서 뱀(사탄)에게 선포하신 성경 최초의 구원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상하게 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구원자는 발꿈치에 상처를 입을 것(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는 구속사의 청사진입니다.

- 이 원복음은 메시아의 오심을 향한 모든 예언의 근본이 됩니다.

(2) 아브라함 언약으로의 구체화: 세 가지 약속의 통합

a. 땅의 언약: 영원한 안식처의 예표

-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이는 단순한 지리적 소유를 넘어, 타락으로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이자,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처를 예표합니다.

b. 후손의 언약: 언약의 통로

-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언약의 계보를 보존하고 그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통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후손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분의 씨(Seed)를 지칭합니다(갈 3:16).

c. 복의 근원 언약: 만민 구원

-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 이니라"는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

[갈 3: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민족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복음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3) 메시아를 향한 구속사의 최종 목표

a. 궁극적 문제 해결

- 이처럼 창세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세 가지 언약을 통해 메시아(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향해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b.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며,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임하는 확실한 길을 제시하며 구속사를 전개합니다.

3. 구조와 내용의 흐름 (역사의 연속성)

가. 구조적 원리: '후손의 기록' <톨레돏>

(1) 톨레돏의 의미와 기능

a. 역사의 이중적 기능

- 창세기는 '후손의 기록' <톨레돏>이라는 히브리어 문구를 중심으로 10번 반복되며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톨레돏>은 단순히 족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을 회고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을 예고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합니다.

b. 구속사적 이정표

- 즉, <톨레돏>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계획을 따라 세대를 거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2) 역사의 분리와 집중 (10가지 톨레돏)

a. 보편사 시대: 인류 보편의 실패

- 창세기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톨레돏>은 천지 창조, 아담, 노아,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셈의 계보를 다룹니다(창 1장~11장).
- 이 <톨레돏>들은 인류 보편의 죄악, 홍수 심판, 그리고 민족의 분산이라는 파멸의 역사를 추적하며, 구원의 역사가 선택된 소수에게 집

중될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b. 족장 시대: 언약의 계승과 보존

- 여섯 번째 <톨레돏>인 데라의 계보부터 마지막 야곱의 계보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특정 가문에 집중되는 역사를 다룹니다(창 12장 ~50장).
- 이 시점부터 성경은 인류 전체를 다루는 것을 멈추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고 보존되는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3) 톨레돏을 통한 하나님의 여과 방식

a. 구원 약속의 흐름 보존

- <톨레돏> 구조는 역사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필터링 방식을 보여줍니다.
- 즉, 수많은 인류와 민족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의 계보만을 주된 흐름으로 기록합니다.

b. 신실한 섭리의 통찰

- 이 구조를 통해 독자는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였다는 영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나. 내용적 구분: 원역사 시대 (창 1장~11장) - 인류 전체의 실패

(1) 창조와 타락: 원죄의 시작과 전적 타락

a. 창조와 죄의 기원

- 창세기는 완벽했던 창조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시작을 설명합니다.
- 인간의 범죄는 단순한 규칙 위반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려는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b. 원죄의 전가와 상실

- 이 불순종의 결과, 원죄(Original Sin)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으며(롬 5:12), 인간은 영적으로 죽고 모든 영역에서 부패하는 전적 타락 상태에 빠졌습니다.
- 이 타락은 죄의 본성을 심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롬 3:23).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더니

(2) 죄의 확산과 심판: 공의의 필요성과 정화

a. 죄악의 극에 달함

- 창조의 두 번째 세대에서 가인의 살인이 발생하며 죄는 급속히 확산됩니다.
- 이후 경건한 계보(셋)와 세속적인 계보(가인)가 영적으로 타협하고 섞이면서 죄악이 세상에 극에 달했고(창 6:2),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게 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창 6: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b. 홍수 심판의 공의와 은혜

-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었기에 홍수 심판을 통해 세상을 정화하셨습니다.
-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집행된다는 엄중한 선언인 동시에, 노아를 통해 언약을 보존하신 은혜 언약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3) 인류의 분산: 조직적 교만과 인본주의의 좌절

a. 바벨탑의 조직적 반역

- 노아의 후손들은 홍수 심판을 잊고 다시 한번 인간의 힘으로 안정을 찾으려는 조직적인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 그들은 "자기 자랑"을 위해 바벨탑을 쌓으며 온 지면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

했습니다. 이 시도는 인간의 연합과 기술을 통해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인본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b. 심판을 통한 좌절

- 하나님은 언어를 흘으시는 심판을 통해 인간의 오만과 교만을 좌절시키셨습니다.
- 이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다. 내용적 구분: 족장 시대 (창 12장~50장) - 선택된 은혜

(1)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원리

a. 칭의의 구속사적 기초

-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부름 받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원리를 세웠습니다(창 15:6).
- 이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Justification by Faith)의 구속사적 기초를 놓았습니다.

[창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b. 일방적인 은혜의 확증

- 그의 삶은 햇불 언약처럼,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임을 확증하는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2) 이삭: 순종과 희생의 예표

a. 언약 기업의 계승

-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써(갈 4:28) 온유하고 평화로운 성품으로 언약의 기업을 조용히 이어받았습니다.
- 그의 삶은 언약이 고난과 순종을 통해 계승됨을 보여줍니다.

[갈 4: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b. 대속적 희생의 모형

- 특히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번제단에 누운 그의 삶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는 희생양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실 것을 가장 명확하게 예표합니다.

(3) 야곱: 하나님의 예정과 성화의 드라마

a. 주권적인 예정

-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롬 9:11).
- 그의 삶은 간계와 인간적인 욕망으로 얼룩졌습니다.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b. 성화와 새 정체성

- 하나님은 하란에서의 징계와 압박강 씨름을 통해 그의 교만한 본성을 깎아내셨습니다.
- 야곱이 옛 자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본성이 성결하게 빛어지는 성화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4) 요셉: 섭리를 통한 언약의 보존

a. 섭리 신앙의 절정

-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가 된 요셉의 삶은 인간의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있음을 확증하는 섭리 신앙의 절정입니다(창 50:20).

[창 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b. 메시아 통로의 확보

- 요셉의 고난과 승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하여 민족 형성의 기반이 되는
애굽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인 통치였습니다.

- 요셉은 그리스도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방
인의 구원자로 승귀할 것을 가장 명확하게 예
표합니다.

4. 창세기의 영적인 의미

가. 모든 교리의 뿌리

(1) 기원론적 교리

a. 삼위일체적 창조와 인간론

- 창조 기사를 통해 하나님론(삼위일체적 창조),
인간론(하나님의 형상)의 기초를 세우며, 죄
론(죄의 기원과 전가)의 필연성을 설명합니
다.

b.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정립

- 창세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관계를
정립하여,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를 제공합니
다.

(2) 구원론적 및 종말론적 교리

a. 구원론과 성령론의 씨앗

- 구원론(원복음과 대속의 예표), 성령론(창조와 구속 초기의 성령의 능동적인 사역)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b. 영원한 안식과 소망

- 교회론(아브라함의 씨앗), 종말론(에덴의 상실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재림의 그림자) 등 모든 핵심 교리들이 그 근본적인 틀을 이 책에 두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섭리

(1)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권

a. 요셉의 고백을 통한 확증

- 요셉의 고백(창 50:20)을 통해 드러나듯이, 인간의 실패와 악행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더 크고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b. 섭리의 위안

-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언약 백성의 발걸음을 메시아의 오

[창 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심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십니다.

- 이 숨겨진 섭리에 대한 믿음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는 신앙적 근거가 됩니다.

(2) 풍성한 메시아 예표론의 기초

a. 타락과 회복의 모형

- 아담은 죄를 가져온 첫 번째 아담으로서 두 번째 아담(그리스도)의 대비가 되며,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통로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b. 희생과 승귀의 모형

-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삭의 번제는 독생자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 요셉의 버림받음과 애굽의 총리로의 승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모형론(Typology)은 성경 해석 방법론 중 하나로, 구약의 실제적인 사건, 인물, 혹은 제도(모형)들이 장차 도래할 신약의 더 크고 궁극적인 실체(반모형),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예표하고 미리 보여준다고 믿는 해석 방식입니다. 이는 구약 전체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도를 담고 있음을 확증하며, 예를 들어 아담(첫 사람), 멜기세덱(영원한 제사장), 또는 노아의 방주(구원의 통로)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 장

/

천지 창조와 근원

제 1 장 천지 창조와 근원

도입내용

(창 1-2장)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놀라운 질서와 권능을 증언합니다. 1장은 완전했던 창조 세계와 그 정점인 인간이 어떻게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복음(창 3:15)이라는 최초의 구원 약속을 심으심으로써 구속사의 막을 여시는 근본적인 기원을 다룹니다.

1. 천지 만물의 창조

가. 창조의 순서와 하나님의 안식

(1) 창조의 순서 (첫째 날 ~ 여섯째 날)

a. 창조의 근본 원리 (창 1:1-2)

-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 존재하지 않던 세계를 창조하신 과정, 즉 무로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부터의 창조를 보여줍니다(창 1:1). 이 선언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물의 유일한 근원임을 밝히는 신앙고백의 기초입니다.

- 창조 이전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묘사됩니다(창 1:2).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후> 와 <보후> 를 뜻하며, 이는 형태가 잡히지 않고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미완성의 혼돈을 지칭합니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의 삼위일체 사역

성부(계획), 성자(말씀), 성령(운동)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 이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은 성령의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임재를 나타냅니다. 성령은 혼돈의 상태를 변형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b. 첫째 날: 빛과 구별의 원리

-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는 명령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구별하셨습니다(창 1:3-5). 이 빛은 태양이 창조되기 전의 신령한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 이 첫째 날의 구별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처음으로 부여하신 ‘질서’와 ‘분리’의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는 하나님 자신(빛)과 죄의 세력(어둠)을 영원히 구별하시는 구속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요 1:4-5).

c. 둘째 날: 하늘과 땅을 구분하심

- 하나님은 궁창(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창 1:6-8).
- 이 궁창은 천상과 지상을 구분하는 경계를 설정하신 것입니다.
- 영적으로 이는 창조된 하늘(궁창)은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과 세상에 속한 인간의 영역을 나

[창 1: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 1:4]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 1:5]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5] 빛이 어둠에 비취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 1:6]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하시고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창 1: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누면서도, 그 둘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와 질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d. 셋째 날: 생명의 토대와 부활의 원리

-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물(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창 1:9-10). 이는 생명의 토대가 될 안정된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 이어서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나게 하셨는데(창 1:11-13), 이는 흙과 같이 죽은 것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부활의 원리를 창조 세계에 새겨 넣으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 넷째 날: 시간의 주관과 영원한 언약의 증인

-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시어 낮과 밤을 주관하고 시간과 절기,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창 1:14-19).
- 이 천체들은 스스로 빛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도구로서 창조되었습니다(시 19:1-2).
- 영적으로 이는 인간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우상숭배 금지의 메시지를 우주적으로 선포합니다.

[창 1:9]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창 1: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11]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창 1: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1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시 19:1]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 19: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f. 다섯째 날: 풍요로운 축복과 생육의 명령

- 하나님은 물속에는 생물들을, 하늘에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축복의 명령을 주셨습니다(창 1:20-23).
- 이 축복의 명령은 생명이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선물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가득히 퍼져나가 완성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g. 여섯째 날: 창조의 완성, 인간과 대리 통치

-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창 1:24-31).
-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선언하셨습니다(창 1:26).
- 이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서, 창조된 세계에서 제사장-왕(Priest-King)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 통치자로 위임받았음을 뜻합니다.

[창 1:20]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창 1:21]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낳게 하신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 1:2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스리게 하자 하시고

(2) 하나님의 안식과 복 주심 (일곱째 날)

a.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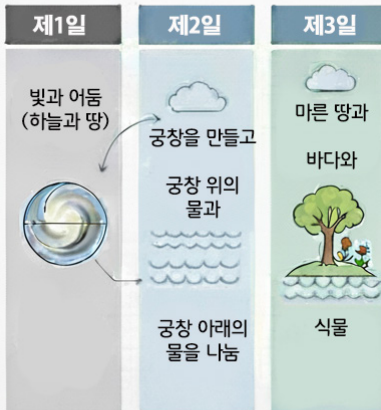
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으며 그날을 복 주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창 2:3).

- b. 이 안식은 창조주로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완전한 만족과 충만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인간에게 노동을 멈추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영적 교제를 통해 궁극적인 만족과 영원한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신 안식의 원리입니다(롬 13:14).

[창 2: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롬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역 선택 (Creation Days 1-3)



채움 (Creation Days 4-6)



나. 인간 창조와 영적, 육적 특징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

-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창 1:26).
-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지식, 의, 거룩 등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본질적인 능력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창 1:27).
- 인간은 이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형상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요일 4:20).

(2) 흠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

-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땅의 흠으로 사람의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하나님의 호흡)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창 2:7).
- 이 구절은 인간 존재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육체로서는 땅에 속하여 유한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여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 따라서 인간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으며, 피조물로서 그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집니다.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일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 자라

(3)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축복(문화 명령)

- 하나님은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 1:28)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 이를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며, 인간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해야 할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롬 11:36),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2. 에덴 동산과 인간의 사명

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1) 동산 중앙에 두신 두 나무

-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창 2:9). 이 두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행위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

[창 2: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는 주권자이시며, 인간은 그 주권에 복종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순종의 시험대였습니다.

(2)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

-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은 동산을 경작하는 노동뿐 아니라, 그 동산을 침입과 해악으로부터 지키는 책임까지 포함했습니다(창 2:15).
- 이 '지키는' 사명은 영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동산이라는 신성한 공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 인간의 타락은 곧 이 금지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으며, 이는 모든 죄의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교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롬 1:20).

[창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 결혼의 신성한 제도

(1) 돕는 배필 하와와 언약적 관계

-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중 하나를 취하여 여자(하와)를 만드시고 그녀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창 2:22).
- 이 돕는 배필은 단순히 보조자를 넘어, 남편과 동등한 본질을 가진 존재로서, 남편의 부족한

[창 2: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부분을 완성시키는 보완자이자 영적인 동반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 2:23)”고 고백하며, 이는 남편과 아내가 분리할 수 없는 언약적인 연합으로 맺어졌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창 2:23]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니라

(2)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

-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창 2:24).
-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하고 영원한 연합입니다.
- 이 지상의 결혼 제도는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루게 될 신비하고 온전한 연합 관계를 예표하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 예수님께서도 이 원칙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마 19:6).
-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이 가장 중요함을 보여줍니다(삼상 15:22).

[창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마 19:6]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삼상 15:22]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3. 인간 타락과 원복음

가. 사탄의 유혹과 죄의 유입

(1) 뱀의 간교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 동산을 지켜야 할 사명을 받은 인간은 뱀(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창 3:4).
- 뱀은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심었습니다.
- 하와는 뱀의 간교한 질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약 1:14).

[창 3: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약 1: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2) 금지된 열매를 먹음

- 하와는 뱀의 유혹과 교만(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 먹고 남편과 함께 먹었습니다.
- 이 행위는 (창 2:17)의 명령에 대한 정면적인 불순종이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려는 교만의 죄였습니다.
- 인간의 타락은 곧 언약에 대한 파기였으며, 그 결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수치심과 두려움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3) 죄로 인한 두려움과 숨음

- 범죄 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창조주와의 친밀했던 교제를 잃은 채 두려움 속에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창 3:10]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니다(창 3:10).

- 죄는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롬 3:23).
-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고 물으시며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구속사의 첫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 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최초의 약속 (원복음)

(1) 뱀에게 내리신 저주와 영적 전쟁의 선포

-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 유혹의 주체인 뱀(사탄)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창 3:15).
- 이 선포는 단순한 뱀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후예(죄와 사망의 권세)와 여자의 후손(메시아와 그를 따르는 성도) 사이의 우주적인 영적 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계 12:7-9).
- 세상의 역사는 곧 이 두 세력 간의 끊임없는 충돌로 점철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2)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

-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 이 구절을 원복음(Protoevangelium)이라고 불리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신 최초의 희망이자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a. 여자의 후손의 신바:

-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 없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며 (갈 4:4), 이는 구원의 주체가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으로 올 것임을 예표합니다.

b. 머리와 발꿈치의 대조:

-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지배를 결정적으로 파멸시키고 영원히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승리(골 2:15, 히 2:14)를 의미합니다.
- 반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겪으신 고난과 일시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의미합니다(사 53:5).
- 이는 승리가 고난을 통해 성취되는 메시아의 필연적인 고난을 예고합니다.

c. 구원의 완성: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갈 4:4] 때가 차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골 2:15]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히 2: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음을 보여주며(엡 1:4),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짓밟힐 것을 약속합니다(롬 16:20).
-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멸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실 것임을 확증합니다(요일 3:8).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 3: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3)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

-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창 3:21).
- 이 가죽옷은 죄 없는 존재의 피 흘림(희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었으며, 이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최초의 계시입니다.
- 인간의 노력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확증하십니다(롬 5:8).





2 장

/

아담의 원죄와 구속의 서곡

제 2 장 아담의 원죄와 구속의 서곡

도입내용

(창 3 장) 이 장은 단순한 윤리적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적 관계가 파괴되는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경로를 밝히며, 그 결과로 인간에게 닥친 영적 사망과 저주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선언 속에서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은혜의 서곡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구속사 속에서 교차하는 핵심 계시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었지만, 하나님의 즉각적인 구속 계획은 인간의 타락 이후 곧바로 작동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 사탄의 유혹과 원죄의 본질

가. 뱀의 유혹: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

(1) 하나님의 말씀 권위에 대한 도전

- a. '정말 그러하냐: 진실성에 대한 공격
 - 뱀은 사탄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러하냐'는 의심을 심는 것에서부터 유혹을

시작했습니다(창 3:1).

- 이 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성에 도전하여,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려 한 지적인 반역이었습니다.
-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과 자율성 추구에서 출발합니다.

b. 하나님의 선하심과 동기에 대한 비방

- 사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시다는 비방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이 아닌 질투와 억압의 존재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창 3:5).
- 이 공격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훼손하려는 시도였으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유와 행복을 막는 장애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창 3:1]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 3: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2) 원죄의 본질: 하나님 되려는 교만

a.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자기 신격화

- 사탄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창 3:5).
- 원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려는 자기중심성에 있

습니다.

-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자신의 삶의 규범이 되려는 교만을 선택했습니다.

b. 죄의 보편성과 전가 '과녁을 벗어남' <하마르티아>

- 아담의 불순종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연약적 머리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행위였습니다.
- 이로 인해 죄의 결과와 형벌이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는 '원죄'의 법칙이 성립되었으며(롬 5:12),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목표인 거룩함에서 빗나간 '과녁을 벗어남' <하마르티아>의 상태, 즉 전적 부패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 이 <하마르티아>는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이성 모두가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신학적으로 정의합니다.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2. 타락의 결과: 관계의 단절과 저주

가. 영적 사망과 관계의 단절

(1) 두려움과 숨음: 하나님과의 거리

a. 영적 사망의 가장 확실한 증거

-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심과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창 3:8-10).
- 이는 죄로 인해 영적 교통이 끊어진 영적 사망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 인간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고, 공포와 고립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b. 하나님의 부르: 긍휼과 공의의 시작

-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신 행위는 단순한 위치 파악이 아닌, 타락한 인간을 향한 긍휼과 구속의 의지가 담긴 최초의 물음이었습니다.
- 이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추격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 책임 전가: 인간 관계의 파괴

a. 서로를 향한 비난과 회피

-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를 핑계 댔고, 하와는 뱀을 핑계 댔습니다(창 3:12-13).

[창 3:8] 그들이 날이 서
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
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
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 3:9] 여호와 하나님
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
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
디 있느냐
[창 3:10] 가로되 내가 동
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
로 두려워하여 숨었나
이다

[창 3:12]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계 하신 여자 그
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
이다
[창 3:13] 여호와 하나님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
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
가 먹었나이다

- 이는 죄인의 본성이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창조주까지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됨을 드러냅니다.
- b. 신뢰의 상실과 관계의 변질
 -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던 인간 사이의 신뢰는 파괴되고, 죄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남편과 아내를 서로 대적하고 비난하는 구조로 변질시켰습니다.
 - 이때부터 인간 사회는 분열과 갈등을 내재하게 되었습니다.

나. 삼중적 저주: 고통 노동 사망의 유입

(1) 뱀과 사탄에게 임한 저주

- a. 궁극적 패배와 멸망의 운명
 -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된 것은 사탄이 결국 땅에 속한 패배자로서 굴욕적인 운명을 맞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 이는 사탄의 승리가 일시적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선포합니다.

b. 창조 질서 내에서의 위치 상실

- 뱀은 원래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존재였으나, 저주를 통해 모든 짐승 중 가장 비천한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 이 저주는 하나님께 반역한 피조물이 결국 창조주가 정한 가장 낮은 위치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2) 여자에게 임한 저주

a. 해산의 수고와 고통의 증가

- 여자에게 선언된 저주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극심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창 3:16).
-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이 이제 고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 3: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b. 남편의 지배 구조로의 변질

-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선언은 원래 사랑과 협력이었던 남녀 관계가 죄로 인해 갈등과 지배의 구조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남편의 다스림은 죄 후 발생한 구조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3) 남자에게 임한 저주

a. 가시와 엉겅퀴: 땅과 노동의 저주

- 남자에게 선언된 저주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는 노동의 고통과,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이었습니다(창 3:17-19).
- 인간은 창조 때 주어졌던 기쁨의 노동이 고통과 저주의 짐이 되었으며,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롬 8:20).

b. 육체적 사망의 선고

-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선언은 영적 사망에 이은 육체적 사망의 선고였습니다.
-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고, 궁극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실현되는 심판임을 확증합니다.

[창 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 3: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 3: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3. 구속의 서곡: '최초의 복음' <프로토에반겔리온>과 은혜의 표징

가. '최초의 복음' <프로토에반겔리온>: 창 3:15

(1) 여자 후손과 뱀 후손의 영적 투쟁

a.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 <프로토에반 겔리온>입니다.
-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가장 암울한 순간에 곧바로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영원한 적대 관계를 선포하시며, 구속사의 대결 구도를 확립하셨습니다.

b. 두 씨앗의 대결과 영적 전쟁

- 이 예언은 세상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세력(뱀의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으로 이루어질 것을 계시합니다.
- 이 전쟁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심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 메시아를 통한 사탄 권세의 결정적 파멸

a.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

-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은 장차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발꿈치 상함)을 겪으시지만, 궁극적으로 사탄의 권세(머리 상함)를 결정적으로 파멸시키실 것을 예언합니다.

b. 능력 있는 구속주에 대한 소망

- 이 약속은 희생과 승리를 모두 포함하는 복음의 핵심이며, 절망 속에 빠진 인류에게 능력 있는 구속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신적인 위로였습니다.

나. 가죽옷: 은혜로 말미암는 대속의 예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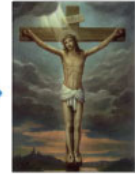
(1) 피 흘림이 있는 대속

a. 수치를 가리는 하나님의 예비와 희생

-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 만들었던 무화과나무 잎 옷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창 3:21).
-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 흘림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죄의 값은 사망이며,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가 가려질 수 있음을 드러내는 최초의 대속적 희생의 예표입니다.

b. 의롭다 하심의 옷

[창 3: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의 가죽옷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을 위해 짐승을 잡아피를 흘림으로 가죽옷을 지어입히셨다(창3장)

뿌린 피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이고(히 11장), 천국은 예수의 피로 시작된 나라이다.

유월절 어린양

어린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갔다(출 12장)

짐승의 피 흘림

성막에는 매일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의 피가 번제소에 흘렸으며 그 피를 성막 곳곳에다가 뿌리고 발랐다(레 4장)

십자가 보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운명하셨을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마 27:51)

- 무화과나무 잎 옷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 반면 가죽옷은 전적 은혜로 주어진 옷이며,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예표합니다.
-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대속적 희생에 기초합니다.

(2) 에덴동산 추방: 구원의 길을 예비하심

a. 생명나무로 가는 길의 차단

-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창 3:24), 단순한 징벌을 넘어서는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 이는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서 영생하는 더욱 끔찍한 비극을 막아 주신 것입니다.
- b. 궁극적 구원을 위한 거룩한 분리
 - 추방은 잠정적인 분리이며, 장차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한 신적인 보호이자 연단의 시작이었습니다.
 - 하나님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에덴의 영광을 잠시 가리우시고, 새로운 화해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3 장

/

죄의 확산과 거룩의 삶

제 3 장 죄의 확산과 거룩의 삶

도입내용

(창 4-5장) 이 장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죄가 인류 사회 전반에 어떻게 급속도로 확산되었는지 드러냅니다. 가인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 문명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과 자원을 과시하며 폭력과 강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의 물결 속에서도 셋의 계보를 통해 언약의 명맥인 경건한 후손을 보존하셨습니다. 이 두 계보의 대조는 구속사에서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음을 예표합니다.

1. 최초의 살인: 죄의 폭력적 발현과 하나님의 공의

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행위와 믿음의 대조

(1) 제사의 본질: 피와 믿음

- a. 가인의 제사: 인간적 노력의 한계
 - 가인은 땅의 소산인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창 4:3).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창 4: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 아닌, 인간적인 노력과 자신의 성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시도를 상징합니다.

-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의 질 문제가 아닌, 그 행위 속에 담긴 믿음의 부재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히 11:4).

b. 아벨의 제사: 믿음과 대속의 예표

-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열납하셨습니다(창 4:4).
- 이는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구속사적 원리를 이해하고 순종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 아벨의 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를 예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히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창 4: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2) 가인의 분노와 하나님의 경고

a. 죄의 지배에 대한 경고

- 하나님께서는 분노하는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엮드리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창 4:7).
- 이는 죄가 인간을 탐하는 야수처럼 기회를 엿

[창 4: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낚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고 있음을 드러내며, 인간에게 여전히 죄를 이기고 다스릴 도덕적 책임이 남아 있음을 선포합니다.

b. 하나님의 재차적인 회개 촉구

-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말씀을 건넸습니다.
- 이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돌이켜 의로운 행위를 택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은혜의 경고를 거부했습니다.

나. 아벨 살해: 최초의 폭력과 하나님의 공의

(1) 죄의 폭력적 절정

a. 형제 살해: 죄의 확산 속도

-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은(창 4:8)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악한 본성이 가장 가까운 형제를 향한 시기와 증오로 폭발한 결과입니다.
- 인간의 타락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살인이라는 극악한 죄가 발생하며 죄의 확산 속도를 드러냅니다.

b. 살인의 근본 원인

- 아벨 살해의 근본 원인은 가인의 악한 행위와 아벨의 의로운 행위 사이의 대조에서 발생했습니다(요일 3:12).
- 아벨의 믿음에 따른 제사가 하나님께 열납되자, 가인은 그 행위에 시기와 질투심을 느껴 아벨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요일 3:12]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2) 피의 외침과 하나님의 심판

a. 공의의 심판과 가인의 추방

-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창 4:10).
- 땅이 피를 흡수하고 그 피가 하나님께 외치는 모습은 죄가 인간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에 미치는 저주와 파괴를 보여줍니다.
- 가인은 결국 땅에서 유리하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 4:10]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b. 가인에게 주신 표징의 의미

- 가인은 자신의 살해당할까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인의 표'를 주어 누구든지 그를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셨습니다(창 4:15).

- 이 표징은 심판의 경고이자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에 대한 즉각적인 멸망이 아닌 구속 계획을 위한 시간을 주시는 섭리를 보여줍니다.

[창 4: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2. 가인의 계보: 인간 중심 문명의 태동

가. 가인의 후예: 세상 왕국의 기초

(1) 하나님 없는 자율적 문화의 건설

a. 낫 땅과 성읍 건축: 불안과 자기 보호

- 가인이 하나님의 낫을 떠나 동쪽 낫 땅에 거주하며 성읍을 건축한 행위는(창 4:16-17) 세상의 권세와 문명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는 불안감과 자기 방어 본능에서 비롯됨을 드러냅니다.
-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인간의 기술력과 성벽에 의지하여 안전을 구하려 했습니다.

[창 4:16] 가인이 여호와와 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낫 땅에 거하였더니

[창 4:17]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b. 에녹의 이름: 영광의 도둑질

- 가인은 자신이 세운 성읍의 이름을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창 4:17).
- 에녹의 이름은 '봉헌됨' 또는 '가르침'을 의미하

지만, 이는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할 영광을 자신의 후손과 문명에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 기술과 예술의 발달과 타락

a. 유발과 두발가인: 문명 발전의 양면성

- 가인의 후예 중 라멕의 아들들은 유발(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 야발(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두발가인(동철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으로 나타납니다(창 4:20-22).
- 이는 기술과 예술, 문화가 발달하는 세상 문명의 기초를 보여주지만, 이러한 모든 발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자긍심과 쾌락을 위해 사용되는 타락의 양면성을 경고합니다.

b. 인간 중심의 실용주의

-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인간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켰으나, 영적인 타락과 병행했습니다.
- 철기 문명과 악기의 발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닌, 죄악된 삶의 수단이나 오락의 방편으로 전락하여 세속 문화를 심화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창 4:20]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창 4:21]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창 4:22] 썰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나. 라멕의 노래: 폭력의 심화와 복수의 선포

(1) 70배 7번의 복수: 최악의 극치

a. 하나님의 심판 권한 침해

- 라멕이 두 아내에게 부른 노래는 자신의 상처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하신 보호(7배 복수)를 스스로 취하여 '라멕은 칠십칠 배'로 복수하겠다고 선포하는 극도의 오만과 폭력을 드러냅니다(창 4:23-24).
-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권한을 침해하고 자신의 힘을 절대화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 4: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싸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창 4: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로다 하였더라

b. 일부다처제의 도입과 최악의 가속화

- 라멕은 성경에서 최초로 두 아내(아다와 싸라)를 맞이한 인물입니다(창 4:19).
- 이는 창조 질서인 일부일처제를 파괴하고 최악을 가속화하는 행위였습니다.
- 가정의 기초가 무너짐으로써 가인의 계보는 폭력과 방탕의 길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창 4:19]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싸라며

3. 셋의 계보: 경건의 명맥과 언약의 보존

가. 셋의 탄생: 언약 후손의 시작

(1) 경건한 계보의 분리

a. '다른 씨'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

- 아담이 가인에게 아벨을 잃은 후,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후손이 바로 셋입니다 (창 4:25).
- 셋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폭력적인 계보와 분리된 경건한 '다른 씨'를 통해 언약의 명맥인 구속사를 지속시키시려는 신적인 섭리를 드러냅니다.

b.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

-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창 4:26),
- 세상의 문명과 폭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고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이들은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된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영적 기초를 예표합니다.

[창 4:25]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 4: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 경건의 계보: 언약 보존의 역사

(1) 창세기 5장의 족보: 생명과 죽음의 교차

a. '죽었더라'의 반복적 선언

-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셋에서 노아에 이르는 경건한 계보를 보여주지만, 각 인물의 생애 후 반복되는 '죽었더라'는 선언은(창 5장 전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선고된 사망이라는 저주가 언약 백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냉철하게 드러냅니다.
- 이는 아담의 죄의 보편적 결과입니다.

b. 족보의 신학적 의미

- 이 족보는 가인의 계보가 세상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언약의 후손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 길게 기록된 수명은 홍수 이전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심판 직전까지 회개할 긴 시간을 주셨음을 시사합니다.

(2) 에녹의 동행: 심판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

a. 하나님과 동행한 삶과 승천

- 에녹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인물입니다(창 5:24).
- 그의 삶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산 증거이며,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경험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예표합니다(히 11:5).

b. 구속사적 예언자의 역할

- 유다서의 기록에 따르면, 에녹은 장차 하나님께서 만민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최초의 예언자였습니다(유 1:14-15).
- 이는 그의 동행이 단순한 개인적 경건을 넘어 세상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창 5: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 11: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유 1:14] 이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 1:15]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4 장

/

홍수 심판과 새시대 언약

제 4 장 홍수 심판과 새시대 언약

도입내용

(창 6-9장) 창세기 6장부터 9장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로 발현된 홍수 심판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대한 공의의 심판인 동시에,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언약의 명맥을 보존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구속사적 전환점입니다. 홍수는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된 창조 질서를 일시적으로 해체하고 정화하는 '심판의 세례'였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때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1. 죄악의 관영과 하나님의 탄식

가. 죄의 극심한 확산과 영적 타락

(1) 경건한 후손의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의 결혼

a. 영적 정체성의 상실

-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끌려 아내로 취한 사건은(창 6:2) 경건한

[창 6: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셋의 계보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혼합되어
영적 경계를 무너뜨린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는 외적인 매력을 따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언약 공동체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b. 강포한 자들의 등장: '타락한 자들' <네피림>

- 이러한 혼합의 결과로 세상에는 '타락한 자들'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강포한 자들이 등장했습니다(창 6:4).
- <네피림>은 물질적 힘과 폭력을 추구하며 세상을 지배한 세력을 상징하며, 인간의 죄악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폭력으로 확산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창 6:4]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2) 하나님의 탄식과 한계 설정

a. 전적 부패: 마음의 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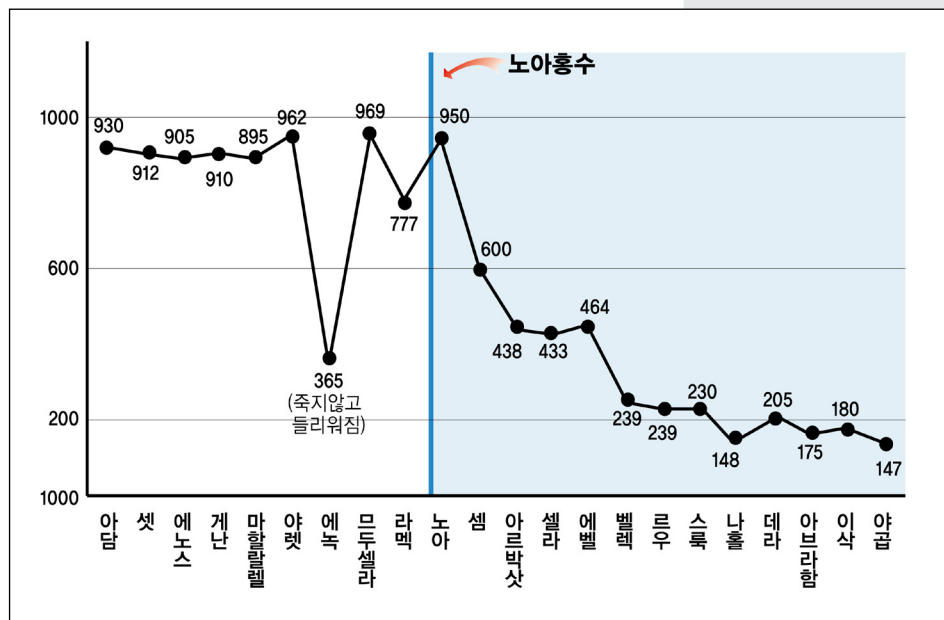
-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창 6:5).
- 이 선언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확증하며, 죄가 인간의 의지나 행위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인 마음의 근원까지 오염시켰음을 드러냅니다.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b. 인간의 시대에 대한 제한

- 하나님은 '육체가 된' 인간에 대해 '그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창 6:3).
- 이는 홍수 심판 전에 주어진 최후의 유예 기간인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명과 시대에 제한을 두어 죄악의 극단적인 확산을 막으려는 공의로운 조치였습니다.

[창 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2. 노아의 구원: 방주와 심판의 세례

가. 노아: '은혜' <헨>를 입은 의인

(1) 노아의 신앙과 행위의 본질

a. 여호와께 은혜 '은혜'<헨>를 입은 자

- 세상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고 강포가 가득했을 때, 오직 노아는 '은혜'<헨>를 입었습니다 (창 6:8).
-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죄악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헨>은 구속사의 모든 시작이 인간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b.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창 6:9)은 에녹의 계보를 잇는 신앙의 연속성을 드러냅니다.
- 노아의 동행은 당대의 악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구별된 경건을 의미합니다.

[창 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 6:9]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 6:14] 너는 젖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창 6:15]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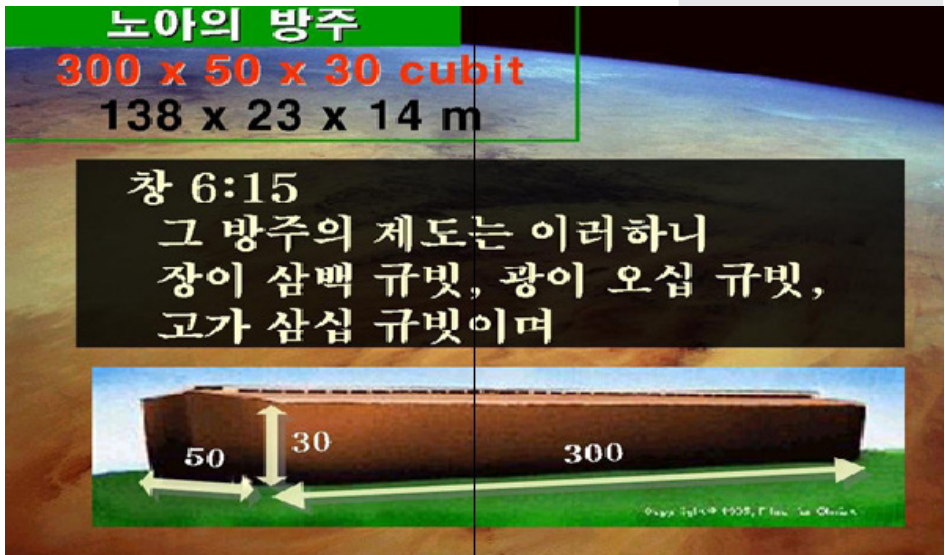
(2) 방주 건축: 믿음과 순종의 행위

a.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격과 재료

-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규격(길이, 너비, 높이)과 재료(젓나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창 6:14-16).
-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제작된 구원의 도구입니다.
- 노아가 이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준행한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수한 믿음의 본모기를 보여줍니다(히 11:7).

백규빗, 광이오십규빗, 고가삼십규빗이며 [창 6:16]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삼층으로 할 지니라

[히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b. 방주의 구속사적 의미

- 방주는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는 교회와 그리스도

를 예표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얻었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세상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 물 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은 후일 세례가 상징하는 죄로부터의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예시합니다.

3. 새 시대 언약: 심판 후의 재창조와 약속

가. 홍수 심판: 세상의 정화와 구원

(1) 물의 심판: 창조 질서의 해체

a. 궁창 위의 물이 열리다

- 홍수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창 7:11).
- 이는 창조 첫째 날 나누어졌던 궁창 위의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질서 지으셨던 세계가 일시적으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 심판은 창조 질서에 대한 죄의 파괴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재창조적 행위였습니다.

b. 심판의 보편성

[창 7:11] 노아 육백 세 되던 해 이월 곧 그달 십 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노아의 홍수

창세기 6-9장

심판



심판의 이유: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고통

창세기 6:6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 * 죄악의 절정 (창 6:5)
- * 신앙의 계보 혼합
- * 항상 악할 뿐인 생각
- * 하나님의 깊은 슬픔 (나함)

방주의 구원

노아의 은혜와 구원의 통로

창세기 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 (테바): 보호의 상징

여정

- * 홍수: 40일 밤낮
- * 물이 물러남: 150일
- * 방주 정착: 아라랏 산 (7/17)
- * 나옴: 1년 후 (601년, 2/27)

- * 짐승: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 *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구원

언약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성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성

창세기 9: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 * 영원한 약속: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음
- * 무지개: 하나님이 심판의 활을 거두심
- * 나의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함

우리 삶에 적용

1. 세상적인 혼합을 피하고, 순종으로 영적인 방주를 지으십시오.
2.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사랑 안에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 물이 온 땅을 덮어 모든 생물을 멸절시킨 것은 죄악의 영향이 인간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에 미쳤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구적으로 보편적이었음을 드러냅니다.

(2) 구원의 시간: 방주 안에서의 '쉼' <누아흐>

a. 하나님의 '닫으심'

-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행위(창 7:16)는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결정적인 경계를 선포합니다.
- 인간의 결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만이 구원을 확정합니다.

b.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의 기간

- 노아라는 이름의 뜻인 '쉼' <누아흐>처럼, 방주 안에서의 기간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새로운 세계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 기간은 구원 받은 백성이 세상 속에서 누릴 영적 쉼을 예표합니다.

[창 7: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나. 무지개 언약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1) 노아의 제사: 언약 백성의 첫 행위

a. 구원 후의 감사와 헌신

-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창 8:20).

[창 8:20]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었으며,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헌신하겠다는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b.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심' <니호아흐>

-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를 '기뻐 받으심' <니호아흐>이라는 표현은 노아의 이름 <누아흐>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 이는 노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평화와 안식이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며,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사를 예표합니다.

(2) 무지개 언약: 영원한 표징

a. 하나님의 신실함의 확증

-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후손,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창 9:11).
- 이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b. 무지개: 심판 대신 긍휼의 표징

[창 9: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 무지개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 활을 하늘에 두신 표징입니다(창 9:13).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기인 활을 하늘을 향해 놓음으로써,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진노하지 않으시겠다는 긍휼과 자비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창 9: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5 장

/

바벨탑 사건: 인간의 교만

제 5 장 바벨탑 사건: 인간의 교만

도입내용

(창 10-11장) 홍수 심판 후 인류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잇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연합된 반역이 극치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흠어지지 않고 스스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인류를 지면 위에 흠으셨습니다. 이 분산은 심판인 동시에, 훗날 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구속 계획을 시작하기 위한 신적 준비였습니다.

1. 노아 후손의 분산: 민족들의 족보

가. 민족들의 족보: 세상 모든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1)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한 인류의 확장

a.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재확인

-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홍수 후 인류가 셈 함

아벳 세 아들을 통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는 창조 명령(창 9:1)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 족보의 세부적 기록은 모든 민족과 역사가 하
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확증합니
다.

b. 구속사적 통로의 예비

- 이 족보는 셈의 계통을 따라 후일 아브라함이
나올 언약의 통로를 세밀하게 예비하는 신학
적 목적을 가집니다.
- 세상 역사는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
야 합니다.

[창 9:1] 하나님이 노아
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
시되 생육하고 번성하
여 땅에 충만하라

(2) 함의 후예: 권력과 반역의 기원

a. 니므롯의 등장: 최초의 강포한 영웅

- 함의 후손 중 니므롯은 '세상의 처음 영웅'이
자 여호와 앞에 강포한 자로 묘사됩니다(창
10:8-9).
- 그는 최초로 바벨과 다른 성읍들을 건설하며
인간의 힘에 기초한 세속적인 왕국과 권력을
세운 인물입니다.

[창10:8] 구스가또니므
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
상에 처음 영결이라
[창10:9] 그가 여호와 앞
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
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
한 사냥꾼이로다 하더
라

b. 함의 저주: 가나안의 운명

- 함의 불경으로 인한 가나안의 저주는 후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영적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 이 저주는 하나님의 권위를 경시한 죄악에 대한 결과를 드러냅니다.



2. 바벨탑 사건: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개입

가. 바벨탑의 건축 동기: 연합된 반역

(1)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름을 내자'

a. 인간적인 영광의 추구

- 바벨탑 건축자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선언했습니다(창 11:4).
-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피조물 자 신들의 능력과 명성을 드러내려는 극도의 자기 숭배이자 교만이었습니다.
- 이 탑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화하여 하나님께 도전하는 구조물의 상징입니다.

b. 흠어짐에 대한 거부

- 그들은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창 11:4).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창 9:1)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집단적인 안전을 추구하려 했습니다.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2) 바벨의 재료와 기술: 인간의 한계

a. 벽돌과 역청: 인위적인 재료

- 그들이 돌 대신 벽돌을 굽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연적인 재료가 아닌,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 인위적인 문명

을 만들어 내려 했던 자만심을 드러냅니다(창 11:3).

- 이는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본주의적 시도였습니다.

b. 기술의 영적 전략

- 인간이 가진 기술과 지혜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지만, 바벨탑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도구로 전략되었습니다.

3. 하나님의 개입: 언어 혼잡과 강제적 분산

가. 언어의 혼잡: 심판의 방식

(1) '혼란' <바벨>의 영적 의미

a. 인간 연합의 파괴

-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그 결과 탑 건축이 중단되고 인류는 강제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창 11:7-8).
- 바벨은 '혼란' <바벨>이라는 뜻처럼, 교만한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력하게 혼란으로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창 11: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 11: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b.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개입하셨습니다(창 11:5).
- 이는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의지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존재함을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창 11:5]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나. 분산: 언약 백성을 위한 준비

(1) 심판을 통한 구속사의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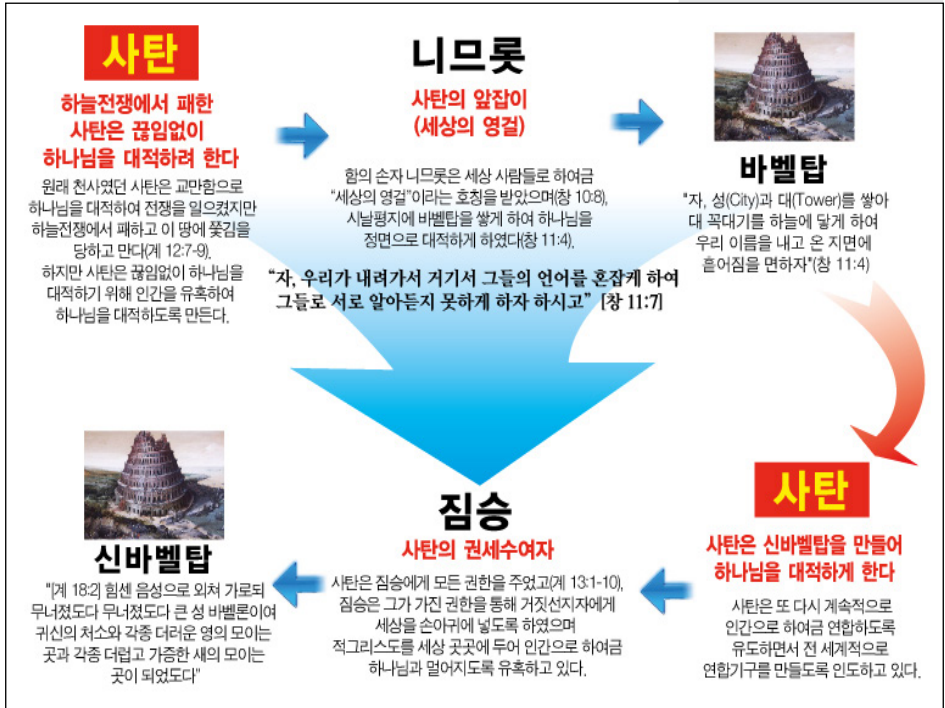
a. 새로운 언약의 기반 마련

- 바벨탑 사건은 인류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확증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흠으심으로써, 한 특정 개인(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언약 체계를 세울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 심판은 언제나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b. 오순절의 영적 회복 예표

- 바벨에서 혼란된 언어는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 성령께서는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

게 하심으로, 흠어졌던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재결합될 것을 예표합니다.







6 장

/

아브라함의 소명

제 6 장 아브라함의 소명

도입내용

(창 11 후반 - 12장)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철저히 심판받은 후, 구속사의 초점은 온 세상에서 한 개인(아브라함)에게로 좁혀집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대지’ <테라>**라는 뜻을 가진 이 사람을 불러내심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은 단순한 이주 명령이 아니라, 죄악 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 오라는 구속사적 부르심이었습니다.

1. 셈의 계보: 언약의 통로

가. 데라의 족보: 갈대아 우르의 배경

(1) 우상 숭배의 배경과 소명의 중요성

a. 죄악된 환경에서의 부르심

-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수

24:2).

-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 된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경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구속사가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수 24:2]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b. 하란까지의 이동: 믿음의 불완전성

-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습니다(창 11:31).
-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직 불완전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주도가 아닌 하나님의 재촉으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창 11: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2) 데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완전한 출발

a. 아버지의 죽음 이후의 소명 재확인

-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창 12:1).
- 이는 아브라함이 혈육의 끈과 과거의 모든 영향력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하는 새로운 영적 독립 상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b. 믿음의 여정의 시작

- 아브라함은 비로소 데라의 영향 아래 있던 하란을 떠나 오직 믿음에 의존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구속사적 여정을 시작했습니다(행 7:4).

[행 7:4]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2.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가. 소명 명령: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

(1) 분리와 순종의 영적 의미

a.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

-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죄악된 세상의 권세, 안정, 익숙함으로부터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 이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신앙의 본질을 예시합니다.

b.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

-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섰습니다(히 11:8).
- 이러한 순종은 인간적인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붙잡는 진정한 믿음의 결단

[히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이요 받을 땅에 나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단이었습니다.

(2) 삼중 언약의 계시: 땅 후손 복의 근원

a. '복의 근원'이 될 사명

-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 12:2).
- 아브라함은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이자 복 자체가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b.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약속

- 이 삼중 언약(땅, 후손, 복)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됩니다.
-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영적인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갈 3:8).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갈 3: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3. 가나안 입성: 언약의 첫 발자취

가. 세겔과 벳엘: 제단을 쌓은 곳

(1) 최초의 정착지와 제단 예배

a. 세겜: 하나님의 나타나심

-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중 세겜 모레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확증하셨습니다(창 12:7).
- 아브라함은 이 장소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아 경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에 경배가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창 12: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b. 벧엘: 언약적 정체성의 확립

- 세겜을 지나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 것은(창 12:8) 그 자신의 정체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확립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한 행위였습니다.

[창 12:8] 거기서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벧엘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

(2) 기근과 애굽 하향: 믿음의 첫 시련

a. 애굽 하향: 불완전한 믿음의 그림자

-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창 12:10) 아직 그의 믿음이 인간적인 두려움과 계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 이는 언약 백성이라도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창 12:10]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b. 사라 사건: 하나님의 개입과 보호

-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인 사건은 인간적인 계략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협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친히 언약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 이는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확증합니다.





7 장

/

언약의 확립과 시련

제 7 장 언약의 확립과 시련

도입내용

(창 13-17장)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과 훈련에 들어섭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조카 롯과의 분가를 통해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이방 왕들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며, 궁극적으로 '햇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훈련의 과정은 인간적인 계산과 불안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는 믿음을 양육하는 기간이었습니다.

1. 롯과의 분리와 전쟁 참여

가. 롯과의 분리: 관대한 선택과 세속적 욕망

(1) 분가의 필연성과 아브라함의 관대함

a. 재산 증가로 인한 갈등 해소

-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과 가족이 심히 많아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

났을 때, 아브라함은 분가를 제안하며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창 13:6-9).

- 이는 평화를 사랑하고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믿음의 조상다운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b. 롯의 세속적 선택

- 롯은 눈에 보기에 좋고 물이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습니다(창 13:10).
- 그의 선택은 물질적인 풍요를 우선시하고 그 지역의 영적인 위험성(소돔 사람들의 악함)을 간과한 세속적인 욕망의 결과였습니다.
- 이는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 믿음에서 멀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예시합니다.

(2) 땅에 대한 언약의 재확인

a. 롯이 떠난 후의 약속

-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그가 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 13:14-17).
- 이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몫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더 크고 온전한 약속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창 13:6]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창 13: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창 13: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굴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창 13: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 13: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넘었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 13: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 13: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b. 헤브론으로의 이주와 제단

-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장막을 옮기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 이 행위는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 다시 예배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공동체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모습입니다.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 13:16]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창 13: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나. 열왕 전쟁과 멜기세덱의 축복

(1) 열왕 전쟁과 롯의 구출

a. 의로운 전쟁 참여

-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발생하여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단된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나가 왕들을 쳐부수고 롯과 그 재물을 구출했습니다(창 14:14-16).
- 이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족과 정의를 위해 무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 14:14]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삼백십팔 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창 14:15]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창 14: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b. 승리의 근원: 하나님의 능력

- 아브라함의 승리는 군대의 수나 힘이 아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 이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이심을 증거합니다.

(2)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의 예표

a. 살렘 왕의 축복

- 아브라함은 전쟁 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만물을 가졌습니다(창 14:18-20).
-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인 동시에,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 행위는 훗날 떡과 포도주를 사용할 성만찬을 예표하는 구속사적 장면입니다.

b. 영원한 대제사장직의 예표

-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고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예표하며,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계시합니다(히 7:1-3).

2. 율법 아래의 제사장 직분: 아론 반차

가. 아론 반차의 기원과 본질

[창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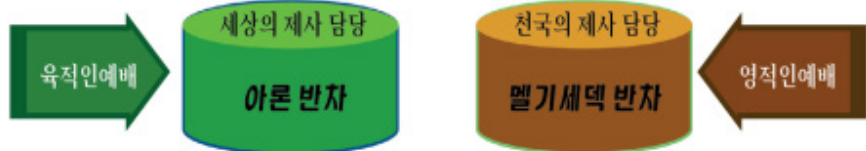
[창 14:19]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 14: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히 7: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히 7:2] 아브라함이 일체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히 7:3]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 ▶ 아론의 반차는 세상의 제사를 담당하도록 준비된 것입니다(히 9:1)
- ▶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천국의 성막을 본 따 세상의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히 8:5)
 - ▶ 모세는 아론을 세워 성막의 예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출 40:15)
 - ▶ 이 땅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통해 거룩함을 얻었습니다(히 7:1)
- ▶ 이 땅의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성막의 예법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벧전 2:9)

- ▶ 멜기세덱의 반차는 천국의 제사를 담당하도록 준비된 것입니다(히 7:11)
- ▶ 천국에서는 하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계 21:3) - 천국의 <장막>과 이 땅의 <성막>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 ▶ 예수께서 친히 멜기세덱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히 6:20)
- ▶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제사는 주님의 보혈에 의해 거룩해집니다(히 7:11)
- ▶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새롭고도 산 길을 만드셨습니다(히 10:20)
- ▶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벧전 2:9)

(1) 율법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 '제사장' <코헨>

a. 특정 지파와 혈통의 제한

-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에게만 허락된 제도였습니다(출 28:1).
-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제사와 중재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특정 혈통에 한정하여

[출 28:1]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거룩함을 유지하려 했던 하나님의 법적 조치였습니다.

b. 모세 오경의 법적 기반

- 아론 반차의 모든 직무와 규례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모세 오경)에 엄격하게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이 제사장 직분은 율법의 요구대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짐승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습니다.

(2) 제사장 직분의 불완전성과 한계

a. 반복되는 제사와 불완전한 대속

- 아론 반차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궁극적으로 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그리고 매년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했습니다(히 10:11).
- 짐승의 피는 죄를 덮을 수만 있었을 뿐, 완전히 제거하거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 이는 이 제도가 장차 오실 완전한 제사장의 그림자에 불과함을 증명합니다.

[히 10: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b. 죽음으로 인한 단절

-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은 모두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히 7:23).
- 제사장의 죽음은 그의 직무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 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가 항상 단절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히 7:23]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으로되

나. 구속사적 역할: 그리스도의 그림자

(1) 율법의 중재자로서의 사역

a. 죄와 거룩의 경계

- 제사장은 백성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 속죄제와 화목제 등 다양한 제사 규례를 집행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백성에게 가르치는 영적 교사였습니다.

b. 그리스도 직분의 예표

- 아론 반차의 모든 제사 규정과 성소 사역은 장차 오실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단 한번의 완전한 희생과 영원한 중보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히 8:5).

3. 영원한 약속의 제사장 직분: 멜기세덱 반차

가. 멜기세덱의 기원과 신분

(1) 왕과 제사장 직분을 겸비한 '왕' <멜렉>

a. 최초의 왕 겸 제사장

-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축복을 빌어준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창 14:18).
-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며, 그가 다스리던 살렘은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는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함께 수행한 구속사적 예표였습니다.

[창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 14: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b.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권위

-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소득의 십일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은 사실은(창 14:20),
-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아론 반차)보다 멜기세덱 반차가 영적으로 더욱 우월한 권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합니다(히 7:4-7).

[히 7:4]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히 7:5]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

(2) 족보가 없는 영원한 제사장

a. 시작도 끝도 없는 직분

- 성경은 멜기세덱의 아버지와 어머니, 족보의 시작과 끝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히 7:3).
- 이는 역사적인 인물을 넘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예표하도록 하기 위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b. 영원한 '완전케 함' <텔레이오시스>의 근거

-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은 죽음으로 인해 단절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 이 영원성이 곧 아론 반차가 이루지 못했던 구원의 '완전케 함' <텔레이오시스>을 이루는 근본적인 근거가 됩니다(히 7:11).

을 가졌으나
[히 7:6]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히 7:7]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히 7:3]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 7:1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 실체

(1)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

a.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반차

- 시편 110편 4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맹세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 아론 반차는 율법에 의해 세워졌으나, 멜기세덱 반차는 하나님의 변개치 않는 '맹세'로 세

워졌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고 완전합니다(히 7:21).

b.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

- 그리스도께서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처럼 매일 반복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히 7:27).
- 이 제사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성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2) 영원히 살아계신 중보자

a. 영원히 지속되는 중보 사역

-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히 7:24),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영원한 중보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 그리스도의 중보는 결코 단절되지 않고 완전합니다.

b. 더 좋은 언약의 보증

-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율법의 언약이 아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히 7:22).

[히 7:21]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 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누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 라하셨도다)

[히 7:27]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히 7: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 도갈리지 아니하니

[히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으니라

- 이는 구속사의 궁극적인 완성이 율법이 아닌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증합니다.

4. 횃불 언약과 이스라엘 출생

가. 횃불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

(1)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로 여기심'

a. 구원의 근거: 믿음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 주시며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창 15:6).
- 이 사건은 인간의 구원이 율법적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선포하는 신약 시대의 복음 원리를 미리 보여줍니다(롬 4:3).

[창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롬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b. 언약 체결: 횃불 언약

-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어 놓고 지나가는 고대의 언약 체결 방식을 따르게 하셨습니다(창 15:9-11).
-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하나님의 현현) 쪼갠 고기

[창 15: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 된 암소와 삼년 된 암염소와 삼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창 15: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창 15:17).

- 이 행위는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와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확증합니다.

(2) 이스마엘 출생: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

a. 사라의 불신과 계략

- 약속이 오래도록 지연되자,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후손을 얻으려 했습니다(창 16:2).
- 이는 인간의 조급함과 불신앙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개입하여 혼란을 야기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b. 육체로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

-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육체적인 노력으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 이 사건은 구원이 율법적 행위(육체의 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으로 말미암음을 드러내는 구속사적 경고였습니다.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창 15:11]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창 15:17] 해가 저서 어
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
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
더라

[창 16:2] 사래가 아브
람에게 이르되 여호와
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
지 아니하셨으니 원컨
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
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
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
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
의 말을 들으니라

나. 할례 언약 구별의 표징

(1)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

a. '전능하신 하나님' <엘 쇼다이>의 선포

-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 쇼다이>로 계시하셨습니다(창 17:1).
- <엘 쇼다이>는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총족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b. 이름의 변경: 정체성의 확립

- 하나님은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사래를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창 17:5, 15).
- 이 이름 변경은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었음을 선포하는 언약적 표징이었습니다.

(2) 할례의 의미: 구별과 성결

a. 육체의 언약 표징

-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육체에 새기는 영원한 표징이었습니다(창 17:10-14).

[창 17:1] 아브람의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 17: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 17: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 17: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 이는 언약 백성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하며, 자신의 후손이 육체적인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b. 마음의 할례를 예표

- 할례는 단순한 외적 의식을 넘어, 궁극적으로 죄악된 육체의 욕심을 잘라내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의 할례'를 예표합니다(롬 2:29).
- 이는 구약 백성이 지향해야 할 영적 성결을 보여줍니다.

[창 17:12]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창 17: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창 17: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뱃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8 장

/

아브라함의 믿음 훈련

제 8 장 아브라함의 믿음 훈련

도입내용

(창 18-22장) 아브라함의 믿음 훈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와 모리아 산에서의 독자 이삭 봉헌을 통해 절정에 이릅니다. 이 두 사건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인을 위해 간구하는 중보자이자 언약을 위해 가장 귀한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완전한 순종자로 성장했음을 보여 줍니다. 특별히 모리아 산 사건은 메시아의 희생을 가장 극적으로 예표하는 구속사의 핵심 장면입니다.

1. 마므레와 소돔: 하나님의 계시와 중보

가. 세 천사의 방문과 언약의 확증

(1) 손님 접대와 사라의 불신

a. 여호와의 현현과 환대

-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 아래에서 세 사람의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접대한 행위는

(창 18:1-8) 극진한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함으로써 구속사적 계시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히 13:2).

[히 13: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b. 사라의 웃음과 약속의 재선포

- 손님들이 다음 해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약속했을 때, 장막 뒤에서 듣고 웃은 사라의 행위는 인간의 이성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창 18:12).
- 이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선언하시며 약속의 성취를 재확인하셨습니다.

[창 18: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2) 소돔 심판 예고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a. 하나님의 심판 계획 공개

-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공개하신 것은(창 18:17)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밀한 친구로 인정하시고 구속사의 경륜을 함께 나누시는 은혜였습니다.
-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운행되고

[창 18:1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있음을 드러냅니다.

b. 의인 10명을 위한 끈질긴 중보

- 아브라함이 소돔 성에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점진적으로 낮춰가며 간구한 중보 기도는 (창 18:23-32)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죄인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에 기초한 영적 투쟁이었습니다.
- 이 기도는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중보를 예표합니다.

[창 18:23]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창 18:32]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십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2. 소돔의 멸망과 모리아 산의 시험

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1) 죄의 극치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a. 도덕적 타락과 심판의 집행

- 소돔 성의 주민들은 손님으로 온 천사들에게까지 성적인 폭력을 가하려 할 정도로 죄악이 극심했습니다(창 19:4-5).
- 하나님은 유향과 불을 비 내리듯 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는데, 이는 죄악이 극치에 달했을 때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본보기였습니다(벧후 2:6).

[창 19:4] 그들의 늙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창 19: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벧후 2: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b. 롯의 아내: 세속에 대한 미련의 심판

- 롯의 아내가 천사들의 경고를 어기고 뒤를 돌아본 행위는(창 19:26) 구원의 손길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죄악과 쾌락에 미련을 두는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한 영적 결과를 드러냅니다.

[창 19: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2)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

a. 약속의 아들 이삭의 탄생

-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약속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창 21:1-3).
-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의 탄생은 인간적인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언약 성취의 확증이었습니다.

[창 21:1]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를 권고 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 하셨습니다

[창 21:2]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 21:3]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리가 자기에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

b. 육체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의 분리

- 이삭의 탄생 후,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되었습니다(창 21:9-14).
- 이 사건은 구속사에서 육체로 난 자(율법)와

약속으로 난 자(복음)의 계통이 분리되는 신
학적 원리를 드러냅니다(갈 4:29-30).

3. 모리아 산의 시험: 절정의 순종

가. 독자 이삭 봉헌: 아브라함의 궁극적 시험

(1) 최고의 요구와 믿음의 결단

a. 하나님의 '시험' <니쇄>와 믿음의 증명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창 22:2).
-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시험하는 '시험' <니쇄>이었으며,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사랑하는지 묻는 궁극적인 요구였습니다.

b.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

-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히 11:19).
- 이 믿음은 육체적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갈 4: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 4: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창 22: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히 11:19] 저가 하나님 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능력과 언약의 신실성만을 바라본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2)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a.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

-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예비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창 22:10-13).
- 아브라함은 그 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고 명명했습니다.

b. 독생자 희생의 예표

-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를 아끼지 않으셨듯이, 장차 하나님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실 것을 가장 정확하고 극적으로 예표합니다(롬 8:32).
- 모리아 산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골고다 언덕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구속사적 장소입니다.

[창 22: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창 22:11]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 22:12]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 22: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롬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9 장

/

이삭과 야곱의 계승

제 9 장 이삭과 야곱의 계승

도입내용

(창 23-27장) 아브라함의 사후, 언약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계승됩니다. 이삭의 삶은 평화를 사랑하고 온유함을 유지하며 언약의 말씀 안에서 조용히 번성하는 경건을 보여줍니다. 반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계승이 인간적인 자격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음을 드러내는 신학적 가르침입니다. 두 쌍둥이의 갈등은 언약 안에서 진정한 영적 가치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1. 이삭: 언약의 아들과 온유함의 예표

가. 리브가와의 만남: 언약의 순수성 보존

(1) 중매 결혼의 섭리적 의미

a. 이방 여인과의 결혼 금지

- 아브라함이 늙어 중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가나안 사람이 아닌 고향 친척 가운데서 찾아오

도록 명령한 것은(창 24:3-4) 언약 백성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보존하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이는 구속사에서 혈통의 정결함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보여줍니다.

b. 하나님의 인도와 기도의 응답

-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 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리브가가 나타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창 24:12-20)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섭리적 사건이었습니다.

(2) 이삭의 삶의 특징: 평화의 상속자

a. 우물을 판 온유한 성품

-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양보하고 새로운 우물을 판 행위는(창 26:17-22) 그의 온유함과 평화를 사랑하는 성품을 보여줍니다.
- 이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언약 백성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예시합니다.

b. 백배의 축복

- 이삭이 기근 중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창 24:3]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창 24:4]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창 26:17]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창 26:18]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창 26: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창 26: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창 26:21]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고로 그 이름을 잇

하나님 곁에 머물러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백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습니다(창 26:12).

- 이는 세상의 환경이 아닌, 오직 언약 안에서의 순종이 참된 축복의 근원임을 확증합니다.

2. 야곱과 에서: 주권적 선택의 원리

가. 쌍둥이의 출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1) 에서의 장자권 경시와 세속주의

- a.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힌 에서: '세속인'의 전형
 -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을 좋아했고, 배고픔 때문에 야곱에게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창 25:29-34).
 - 이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과 영적 가치보다 당장의 육체적 욕구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를 우선시한 '세속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히 12:16). 그는 영원한 것을 위해 잠시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b. 장자권의 신학적 의미

- 장자권은 단순한 상속 몫이 아니라, 가족의 영

나라하였으며
[창 26: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 26: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히 12:16]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있을까 두려워하라

적 대표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언약의 권위를 계승할 신성한 직분을 의미했습니다.

- 에서가 이를 경시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경멸한 것이며, 이는 심각한 영적 배신이었습니다.

(2) '미워하셨다'는 선택의 선언: 예정의 교리

a. 인간의 행위 이전의 선택

-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창 25:23).
- 이 말씀은 인간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작동되었음을 드러냅니다(롬 9:11). 이는 구원의 근거가 인간의 의지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음을 확증하는 예정의 교리적 기초입니다.

b. 사랑과 미움의 언약적 의미

- 아굽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롬 9:13)은 개인의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선 언약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 사랑은 언약 관계 속으로 부르셨다는 뜻이며,

[창 25: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하시

미움은 구속사적 계보에서 제외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임을 보여줍니다.

나. 속임수로 인한 축복 탈취: 섭리의 역설

(1) 축복 탈취 과정의 죄악

a. 야곱의 간교함과 어머니의 계략

-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에 따라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간교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창 27:18-29).
- 이 속임수는 야곱이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죄악을 사용하려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b.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용

- 이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인간의 불완전하고 죄악된 방법을 통해서도 결국 성취되어 나간다는 구속사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사용하셨으나, 그 죄를 인가하시거나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2) 축복의 언약적 능력

a. 선포된 축복의 취소 불가능성

-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 했던 축복은 단순한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계승된 언약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선포된 후에는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 이는 축복의 근원이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b. 에서에게 남은 세속적인 축복

- 축복을 빼앗긴 에서에게 남은 축복은 세속적인 풍요(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와 육체적인 힘(칼을 의지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창 27:39-40).
- 이는 영적인 장자권을 상실한 자에게 남겨진 세상적 유산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창 27:39] 그아비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창 27:40]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애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10 장

/

야곱의 방랑과 이름 개명

제 10 장 야곱의 방랑과 이름 개명

도입내용

(창 28-36장)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친 야곱의 삶은 고난과 방랑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자신의 꾀와 힘에 의존했던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영적 성장의 핵심 시기입니다. 벰엘의 계시와 압북 나루의 씨름은 야곱의 삶과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정체성을 정의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1. 벰엘의 계시와 하란의 연단

가. 벰엘의 꿈: 도망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

(1)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a. 하나님의 현현과 언약의 재확인

-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

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창 28: 12-13).

- 이 환상은 야곱의 죄악 가운데 있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언약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임했음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b. 그리스도의 중보 예표와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 사닥다리는 단절된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명확하게 예표합니다(요 1:51).
- 야곱이 그 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이라고 명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이 가능하게 될 미래를 어렵פות이 담고 있습니다.

(2) 야곱의 서원: 신앙적 응답

a.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서원

-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에 경외심을 느끼고 돌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고 서원했습니다(창 28: 18-22).
- 이 서원은 자신이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여호

[창 28: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창 28: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요 1:51]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 28: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 28:19] 그곳 이름을 베엘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창 28:20]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창 28:21] 나로 평안히

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야곱이 자신의 미래 삶과 재산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b. 영적 성장의 발판과 언약 백성의 정체성

- 야곱이 아직 조건적인 서원을 했지만, 이 서원은 그의 인생에서 자신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영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베엘의 서원은 야곱과 그의 후손이 이방 민족과 구별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는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긴 사건이었습니다.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창 28: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받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던라

나. 하란 생활 20년: 속이는 자의 연단

(1) 라반에게 속임 당함과 죄의 대가

a.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함

-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그 동안 자신이 써왔던 속임수를 라반에게 고스란히 당했습니다(창 29:25).
- 라반이 야곱을 속여 레아를 주어 일곱 년을 더 일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악된 성품을 정화시키시기 위해 그가 스스로 뿌린 대

[창 29: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이니이까

로 거두게 하시는 '연단의 섭리'였습니다.

b. 이스라엘 12지파의 형성

- 라반의 속임수와 두 아내 사이의 경쟁이라는 인간적인 갈등과 죄악 속에서도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인간의 실패와 혼란을 넘어 언약 성취의 도구로 사용되며 언약 백성의 기초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하란을 떠남과 하나님의 보호

a.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귀환

-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큰 재산을 모은 후,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창 31:3).
- 이는 야곱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했던 하란에서의 연단 기간이 하나님의 때에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b. 라반과의 평화적인 분리

-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 다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라반에게 경고하심으로써

[창 31: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창 31:24).

- 이는 야곱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언약 백성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창 31:24]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 압복 나루터: 이름의 변화와 이스라엘의 탄생

가. 에서의 해후 준비와 극도의 불안

(1) 인간적인 계책과 두려움

a. 자기 힘의 최종적 좌절

-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두 떼로 나누는 인간적인 계책을 씁니다(창 32:7).
- 이 두려움은 압복 나루터로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이 아직 자신의 꾀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창 32:7]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악대를 두 떼로 나누고

b. 언약에 근거한 간절한 기도

- 야곱은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자격이 아닌, 오직 벰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말씀('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

라')에 근거하여 구원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창 32:12).

- 이 기도는 야곱의 영적 성장이 극적으로 시작 되었음을 알리는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창 32:1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2) 가족을 먼저 보냄: 영적 고독

a. 홀로 남은 야곱

-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압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오직 자신만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창 32:22-24).
- 이 고독은 야곱이 모든 인간적인 의지처를 끊고 오직 하나님과의 일대일 대면 앞에 서기 위한 신적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창 32:22]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나루를 건널새
[창 32:23]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창 32: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b. 실존적 위기

- 야곱은 압복 나루터에서 자신의 생존 문제가 형 에서의 손에 달려있는 실존적 위기를 겪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나. 씨름: 옛 자아와의 투쟁과 굴복

(1) 신적인 상대 '하나님' <엘로힘>과의 대면

a. 영적 씨름의 본질

-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 <이쉬>은 훗날 야곱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사자였습니다(창 32:30).
- 이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 투쟁이 아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야곱의 고집과 이를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능력 사이의 치열한 영적 투쟁이었습니다.

[창 32:30]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b. 축복을 향한 끈기

- 야곱은 날이 새도록 상대방을 놓아주지 않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매달렸습니다(창 32:26).
- 이 끈기는 세속적인 욕망이 아닌, 언약적 축복을 향한 야곱의 진정한 영적 갈망이 최종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창 32:26] 그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 환도뼈 위골: 힘의 포기과 성화의 시작

a. 인간적인 힘의 꺾임

- 상대방이 야곱의 환도뼈 힘줄을 치자 그것이 위골되었습니다(창 32:25).
- 환도뼈는 인간 힘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이 상처는 야곱의 자신감과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교만이 완전히 꺾이고, 오직 하나님의

[창 32:25] 그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은혜만을 의지해야 하는 '영적 항복'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b. 고통을 통한 평생의 의존

- 아굽은 이 사건 후 평생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는데, 이 고통은 그의 육체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습니다.
- 아굽은 더 이상 '숙이는 자' <아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다. 새 이름의 부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1) 영적 정체성의 확립

a. '이스라엘'의 의미와 새로운 언약

- 아굽에게 새로 주어진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은(창 32:28)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적 관계를 통해 그의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원한 호칭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표명합니다.

[창 32:28]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아굽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b. 새로운 언약의 서막

- 하나님께서 인간의 옛 이름을 바꾸어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은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구속사적 행위입니다.
-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영적 싸움을 수행할 백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a. 하나님과의 대면 경험

- 야곱은 그 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명명했습니다(창 32:30).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 이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율법적 원리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받았음을 확증하는 신앙의 절정이었습니다.

b. 신앙의 질적 변화

- 브니엘의 경험은 야곱의 신앙을 외적인 약속에 근거한 신앙에서 직접적인 계시와 체험에 근거한 신앙으로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창 32:30]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라

다.

3. 귀환과 언약의 완성

가. 에서의 극적인 화해

(1)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의 긍휼

a.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이미 움직이셔서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안고 입맞추며 화해했습니다(창 33:4).
- 이 극적인 화해는 야곱의 인간적인 계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이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b. 평화의 재확인

- 야곱은 에서에게 '형님의 얼굴을 뵈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니'라고 고백했습니다(창 33:10).
- 이는 형제 사이의 온전한 화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뒤따르는 영적 축복의 표징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창 33:4]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창 33:10]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창 35:2]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

(2) 베엘로의 복귀와 언약의 재확인

a. 우상 제거와 순결의 회복

-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엘로 올라가 거주하며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고, 야곱은 이를 따르기 전 자신의 가족 중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모두 제거하고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 묵었습니다(창 35:2-4).
- 이는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세속적인 타협과 죄악을 제거해야 하는 '거룩함'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b. 이름의 최종 확정과 사명

- 하나님은 베엘에서 다시 나타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최종 확정하시고 아브라함 언약(땅과 후손)을 재확인하셨습니다(창 35:10-12).
- 이로써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의 과정이 완료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사명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창 35:3]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창 35: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창 35:10]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 다미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창 35:11]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창 35: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1 장

/

요셉의 고난과 구속 섭리

제 11 장 요셉의 고난과 구속 섭리

도입내용

(창 37-41장)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 신화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향한 '섭리' <프로노이아>의 드라마입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해 고난의 길을 걸었으나, 결국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할 중재자로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죄악된 인간의 행위마저 하나님께서 선으로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구속 원리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1. 요셉의 꿈과 형제들의 죄악

가. 요셉의 꿈: 구속사의 계시

(1) 하나님의 계획과 예고

a. 곡식 단과 해 달 별의 경배

- 요셉이 꾸은 꿈은 곡식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경배하는 내 용이었습니다(창 37:7, 9).

[창 37:7]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서서 절하더라

[창 37: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꾸족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

- 이 꿈은 단순한 미래 예언을 넘어,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언약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고 가족을 치리할 왕적 권위를 부여 받았음을 미리 보여준 '미래의 계시'였습니다.
- 이 계시는 인간의 시기를 촉발했으나,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저항으로도 무너지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b. 아버지 야곱의 묵상과 언약의 무게

- 야곱은 아들과 달리 요셉의 꿈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으나,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묵상했습니다(창 37:11).
- 이는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 계보를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을 직감하고, 요셉이 이 언약 성취의 중요한 도구임을 깨닫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서 말씀을 붙잡는 경건한 태도를 예시합니다.

[창 37:11]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창 37: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창 37:19]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 37: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 형제들의 질투와 악행

a. 배신과 살해 음모: 가인의 죄악 패턴

- 형제들은 요셉을 증오했고, 요셉이 자신들을 찾아왔을 때 그를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꾸밈습니다(창 37:18-20).

- 이 행위는 아담의 타락 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어온 형제 살해의 최악된 패턴이 아굽의 아들들에게까지 깊이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 이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했는지 보여줍니다.

b.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감: 배반의 값과 구속사의 방향

-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은 이십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창 37:28).
- 이 '배반의 값'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삼십에 팔리실 것을 예표하는 구속사적 그림자입니다.
- 이 악행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이라는 당시 세상의 중심 권력으로 옮기셨고, 이는 구속 계획의 방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증했습니다.

[창 37:28]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 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고 은 이십 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 고난 속의 신실함: 여호와와의 동행

가. 보디발의 집과 감옥의 연단

(1) 여호와께서 함께하심: 형통의 근원

a. 고난 속에서의 영적 '성공' <찰라흐>

- 요셉이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창 39:2).
- 이 형통은 세속적인 물질적 성공이 아닌, 노예의 신분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은혜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영적인 '성공'<찰라흐>입니다.
-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요셉의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창 39: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b.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순결: '득죄하리이까'

-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라고 고백하며 죄를 거절했습니다(창 39:9).
- 이 고백은 인간 주인의 눈이 아닌,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가장 두려워하는 요셉의 깊은 경외 신앙과 순결을 보여줍니다.
- 이는 모든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임을 깨달은 자가 취할 수 있는 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창 39: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2) 감옥의 훈련: 통치자로의 준비

a. 억울한 투옥: 겸손의 '학교'

-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창 39:21).
- 감옥은 자신이 특별한 꿈을 가진 자라는 교만을 가지기 쉬웠던 젊은 요셉에게 인생의 바닥과 절망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훗날 총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겸손과 지혜로 통치할 수 있는 인내와 영적 통찰을 연단받는 '신학교'였습니다.

b. 꿈 해몽: 하나님의 지혜 선포

-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할 때, 요셉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창 40:8).
- 이는 요셉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기술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를 의지하는 참된 예언자이자 중재자의 자세를 확립했음을 보여줍니다.

[창 39: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사

[창 40: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3. 바로의 꿈과 총리 임명

가. 바로의 꿈: 국가적 계시

(1) 해석의 근원: 하나님의 지혜

a. 인간 지혜의 한계와 절망

- 바로 왕이 꾸 일곱 마른 이삭과 일곱 마른 양소의 꿈은 애굽의 모든 술객과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하여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창 41:8).
- 이 세상의 권세와 지식은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국가적 위기조차 해결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b. 요셉의 선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 바로 앞에 선 요셉은 꿈 해석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창 41:16).
- 이 고백은 요셉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자신을 숨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대변하는 진정한 선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드러냅니다.

[창 41: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 총리 임명과 구속 사역의 시작

a. 영을 지닌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 요셉의 해석과 지혜를 들은 바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라고 감탄하며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창 41:38-41).
- 바로의 이 고백은 요셉이 지닌 지혜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루아흐)이 임한 결과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로서 세상의 권력 최고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b. 새 이름과 사역: '생명의 공급자'와 그리스도의 예표

- 요셉은 '생명의 공급자'라는 뜻의 새 이름 '사브낫 바네야'를 받고, 7년의 풍년 동안 식량을 저장하고 7년의 기근 동안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 이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인류를 영적인 기근에서 구원하실 것을 가장 명확하게 예표합니다.

c. 이방인과의 결혼: 구원의 보편성

- 요셉은 애굽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창 41:38]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창 41:39]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

[창 41:40] 너는 내 집을 치라 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창 41:41]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과 결혼했습니다(창 41:45). 이 결혼은 요셉의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 가족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 이는 훗날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이방인 교회가 포함될 것을 예시하는 구속사적 그림입니다.





12 장

/

족장 시대의 종결

제 12 장 족장 시대의 종결

도입내용

(창 42-50장) 요셉의 총리 임명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이 챕터는 기근이라는 고난을 통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번성하게 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요셉의 용서와 야곱의 축복을 통해 언약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고 미래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이 예언되면서, 창 세기의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구속사의 무대가 애굽으로 이동됩니다.

1. 형제들과의 재회와 요셉의 시험

가. 기근과 애굽 방문

(1) 형제들의 애굽 방문

a. 언약 가족의 시련

-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양식을 구하게 했습니다(창

42:1-3).

- 이 기근은 형제들이 과거의 죄(요셉을 팔아넘긴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 도구였습니다.

b. 요셉의 꿈의 성취

-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을 때(창 42:6),
- 과거 요셉이 꾸었던 곡식 단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악행과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요셉의 시험과 섭리

a. 형제들의 진정한 회개 유도

- 요셉은 자신을 숨기고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며, 막내 베나민을 데려오게 하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창 42:9-20).
- 이 시험은 복수심이 아닌, 형제들의 마음 속에 과거 요셉을 향한 시기심과 죄책감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막내 베나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b. 은잔 사건과 유다의 중보

[창 42:1]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하느냐

[창 42:2]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창 42:3] 요셉의 형 십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창 42:6]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 요셉은 은잔을 베나민의 자루에 넣어 그를 종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때 형제 유다는 자신이 베나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간절히 중보했습니다(창 44:33).
- 유다의 이 '대신 희생' 고백은 가족 간의 사랑과 책임감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며, 훗날 유다 지파에서 나올 진정한 희생의 중보자를 예표합니다.

[창 44:33]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2. 야곱의 애굽 이주와 가족의 구원

가. 요셉의 자기 계시와 용서

(1) 화해와 구속사적 고백

a. 눈물의 용서 선언

- 형제들의 변화를 확인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대성통곡하며 자신을 계시했습니다(창 45:1-3).
- 이 눈물의 화해는 구원이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통해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b.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 요셉은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

[창 45:1]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창 45:2] 요셉이 방성 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 에 들리더라
[창 45: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존하시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
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창 45:5).

- 이 고백은 인간의 악행을 넘어 구속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섭리' <프로노이아>를 완벽하게 증거합니다.

[창 45:5] 당신들이 나
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
셨나이다

(2) 야곱 가족의 이주: 언약의 보호

a. 70명 권속의 애굽 입성

- 야곱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모든 권속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창 46:26-27).
-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온전함'을 상징하며, 언약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보존되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왔음을 드러냅니다.

[창 46:26]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
의 자부 외에 육십륙 명
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
에서 나온 자며
[창 46:27] 애굽에서 요
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
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칠십 명이었
다

b. 고센 땅에서의 번성

- 요셉은 가족들을 애굽 문명의 영향이 적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했습니다(창 47:6).
- 고센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심히 번성'하며 훗날 큰 민족을 이룰 준비를 하는 요람이 되었습니다.

[창 47:6]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
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3. 야곱의 마지막 축복과 족장 시대 종결

가. 야곱의 영적인 유언

(1)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 유업의 상속

a. 어긋난 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장자)와 에브라임(차자)에게 축복할 때,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올려 축복했습니다 (창 48:14).
- 이 행위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계승된 것처럼, 언약적 축복이 인간적인 서열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됨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b. 요셉 지파의 확대

-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들 처럼 입양함으로써, 야곱은 요셉에게 두 몫의 유산을 주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 요셉의 이름이 아닌 두 손자의 이름으로 두 지파가 형성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창 48:14]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없었더라

(2) 열두 아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

a. 미래 이스라엘의 운명 예고

- 야곱은 자신의 열두 아들 각자에게 개별적인

예언적 축복을 선포했습니다(창 49장).

- 이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각 지파의 미래 성격, 영토, 그리고 구속사 속에서의 역할을 예고하는 '예언적 유언'이었습니다.

b. 유다 지파의 왕권 예언

- 특히 유다에게 '홀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고 축복했습니다(창 49:10).
- 이는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올 것과, 궁극적으로 모든 통치권의 주인이신 메시아(실로)를 통해 완성될 것을 예언하는 구속사적 절정이었습니다.

[창 49:10]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창 49:29]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헛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창 49:30]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헛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창 49:31]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나. 족장들의 유언과 안식

(1) 야곱의 유언: 약속의 땅에 묻힘

a. 믿음의 고백

- 야곱은 자신이 죽은 후 반드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선조들(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장사될 것을 유언했습니다(창 49:29-32).
- 이는 육체적으로는 애굽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땅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히 11:13).

b. 요셉의 유언: 해골 운반 약속

- 요셉 역시 죽기 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며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 달라고 유언했습니다(창 50:24-25).
- 이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출애굽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영원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창 49:32]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헛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히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 50:24]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창 50:25]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창세기 영맥풀이

초판 발행 2015. 11. 15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